이달의 독립운동가 권오설·이선호·박래원·이동환 선생

종교·정치 넘어선 민족 대통합을 이룬 6·10만세운동


권오설 이선호 박래원 이동환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6·10만세운동을 기획하고 참여한 권오설(1897~1930), 이선호(1904~1950), 박래원(1902~1982), 이동환(1901~1982) 선생이 선정됐다.

조선공산당, 천도교,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중앙고보와 중동학교 등 국내와 해외 각지에서 종교와 정치 이념을 초월해 여러 세력들이 민족협동전선체를 형성하고, 국내 의거를 순종의 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로 정하고 이를 추진했다.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인 권오설 선생은 6·10만세운동의 책임자로 조선공산당과 천도교와의 연결을 맡았고, 박래원 선생은 천도교 청년계에서 활약하며 6·10만세운동의 격문 인쇄와 배포, 지방만세운동 확산에 앞장섰다. 이선호 선생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인물로 6·10만세운동의 주체로 활약했고, 이동환 선생은 중앙고보 학생으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중앙고보 등과의 연락을 담당했다.

6·10만세운동은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 거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권오설 선생에게 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이선호 선생에게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박래원 선생에게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이동환 선생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추서했다.

이달의 6·25전쟁 영웅 백두산함 (PC-701) (1949.10.17~1959.7.1.)

대한해협 해전을 승리로 이끈 전투함



이달의 6·25전쟁 영웅에 대한해협 해전을 승리로 이끈 백두산함이 선정됐다.

백두산함은 해군장병과 가족들의 성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마련한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이다. 백두산함은 1950년 6월 25일 동해로 긴급 출항, 대한해협 근해 항해 중 남하하는 적 무장수송선을 발견하고 치열한 교전을 벌였고 그 결과 600여 명의 무장병력이 탑승한 적 무장수송선을 침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백두산함의 승조원인 전병익 이등병조와 김창학 삼등병조가 전사했다.

대한해협 해전은 최초의 해전 승리이자, 백두산함이 유엔군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부산교두보 확보에 기여한 전투로 기록됐다.

정부는 전사한 전병익 이등병조, 김창학 삼등병조의 공훈을 기려 1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훈장을 각각 추서했다.

철기 이범석 장군 추모제

청산리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고 광복 후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범석 장군을 추모하는 '철기 이범석 장군 제49주기 추모제'가 지난달 11일 국립서울현충원 이범석 장군 묘역에서 열렸다.

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제에는 최대한 외부 인사 초청을 자제한 가운데 유족, 기념사업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철기 이범석 장군은 독립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 장교 양성에 주력했으며 1920년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 장군은 1940년 한국광복군 창설에 참여해 항일투쟁을 적극 전개하다 광복을 맞았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으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군 창설과 육성에 크게 공헌했다.

박재혁 의사 순국 100주기

일제강점 당시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널리 알린 박재혁 의사의 순국 100주년 추모제가 지난달 11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수변공원 박재혁 의사 동상 앞에서 열렸다.

박재혁의사기념사업회(회장 이경재) 주관으로 열린 추모제에는 각계인사와 유족, 기념사업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제와 함께 박재혁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열렸다.

한편, 올해 박재혁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회는 박재혁 의사를 추모·선양하는 순회 전시회를 부산지역 초중고에서 지난 3월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6·25참전자 부상 입증 제보자를 찾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찾습니다. 아래의 참전자들과 활동을 함께 했거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 오명원 님(1929.12.30.)



○ **군 복무 내용**
- 1952.3.29. 육군 입대 (군번 0810959), 1953.12.15. 명예전역(병장)
- 2사단 522부대 2중대에서 110mm 탄약병으로 복무

○ **부상 경위**
- 야간이동 중 포차 바퀴에 발목 부위를 깔려 발목이 부러지고 발등이 으스러져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치료 중 무릎이 뒤틀려 명예전역함

■ 고 이대규 님(1926.03.13.)



○ **군 복무 내용**
- 1952.4.12. 육군 입대 (군번 0813083), 1954.9.4. 명예전역(상병)
- 11사단에서 복무, 1954.6.25.~1954.9.4.까지 수도육군병원, 3육군병원에서 치료 받음

○ **부상 경위**
- 전투 중 금화지구에서 두개골 파편상을 입고 헬기 이송 중 2차 사고가 발생해 통합병원에서 40여일 만에 깨어났고, 치료 후 명예전역함

■ 고 이춘성 님(1930.03.20.)



○ **군 복무 내용**
- 1949.1.27. 육군 입대 (군번 2602907), 1952.5.5. 의병전역(하사)
- 6사단 2연대에서 복무 중 1950년경 수도육군병원 치료 받음, 1952.4월부터 36병원과 23병원에서 치료 받음

○ **부상 경위**
- 다리 파편상

■ 필요한 제보 내용

- 부상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지휘관이나 동료, 부하 등 진술
- 부상 부위를 직접 치료한 군의관 등 의료업무 종사자 진술
- 같은 병상 입원환자 등으로서 치료 장면 등을 직접 목격한 분 진술
- 고인으로부터 부상사실을 들었거나, 관련 사실이나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 등 진술

■ 연락처 : 보훈심사위원회 044)202-5831~3, 5955